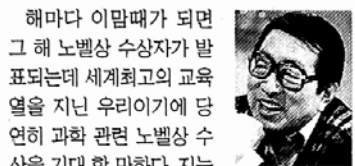


목어

과학분야 노벨상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 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데 세계최고의 교육열을 지닌 우리에겐 당연히 과학 관련 노벨상 수상을 기대할 만하다. 지능으로만 따진다면 노벨상 수상자의 IQ는 120 정도면 충분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 정도 IQ라면 우리나라 웬만한 초등학교에는 한 교실에 수명씩 있다. 과연 언제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필자는 적어도 외국 대학에서가 아닌 손 한국산의 노벨상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혁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획기적인 학문적 업적에 요구되는 것은 강한 지적 호기심, 상상력, 집중력 그리고 스스로 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않는 실험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억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얽매어 왔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학문이 주로 과거시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주로 중국 고전을 암기하는 일이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양적으로는 급성장했으나 예나 다름없이 시험 중심의 교육이며 머리 좋다는 사람은 어김없이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만을 지목한다. 시험문제는 반드시 모범답안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인데, 창의성은 이전에 없던 것들을 찾는 것이다.

필자는 그런면에서 조선왕조실록 진정찬 창의 학문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오히려 과거시험이 상실했음을 기뻐했던 박지원 등 실학파들을 주목한다.

한국에서의 대학입시는 학생이 지닌 지적 가능성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기술을 양산하는 큰 병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수많은 영재들은 시험의 틀에 매여 안타깝게도 그 지성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노벨상은 지식의 양이 아닌 창조성과 그 깊이에 대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백년하청(百年河清) 손 한국산 과학관련 노벨상을 배출하기는 요원할 것 같다.

김응운(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성북동 전등사 28일 불사회향식 '은사 스님 추모법회로'

'세상의 등불' 유지 잇는다

해안 스님 탄신 100년
전등회 3백여 회원
녹음법문 들으며 추모
'해안집' 3권 · CD 발간

서울 성북동 전등사주지 동명(가) 28일 개최하는 불사 회향식을 해안스님 탄신 1백주기 추모법회로 대신한다.

4년간의 불사 끝에 이날 완공되는 전등사는 대지 420평의 작은 사찰이지만 69년 창건 당시 재가불자 수행도량 탄생의 신희란이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금강경> 강해의 독보적 위치도 점하고 있는 해안스님은 1969년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다"며 재가불자 수행도량을 열고 헌신적으로 지도했다. 스님의 재가불자 수행처 마련은 본격적인 재가불교수행의 시작이었다.

스님은 또 1972년 개원한 재가불교운동의 중심도량인 남산의 대원정사 조실로 추대돼 주석하며 대원선원 특별전진법회를 수시로 열어 "수행정진을 마루지 말고 단번에 깨쳐야 한다"는 "단기간

수행체질'을 재가불자들에게 강조하며 참선지도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안스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관음에 찬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원각경> 보안장을 암송한 다음 선정에 든 뒤 아침공양을 했다. 오전에는 좌담설법을 한 뒤 정진과 울력을 하고 저녁에 불후에는 <금강경>을 독송하는 한결같은 정진을 통해 대중들의 귀감이 됐다.

그 당시 전등회 초대회장을 맡은 서동각 박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를 비롯한 전등회 회원들은 해안스님의 유지를 받들며 지금까지 32년간 일주일에 한번씩 옹공정진과 매년 분기마다 일주일씩 안거정진을 해왔다. 전등회는 이제 전국에 300여명의 정예회원을 둔 수행단체로 변모했으며, 활동회원들은 전국 각지

에서 재가수행을 추동하는 힘이 됐다.

이런 스님의 유지가 스며있는 만큼 동명스님은 전등회원들과 불사를 진행하며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누구라도 와서 언제나 참선할 수 있는 시민선방과 불교 학교 공간마련이었다.

또 선방 옆에 건립된 해안 추모당은 생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금강경>을 독송하며, 참선수행과 계명학원을 세워 문명퇴치운동을 벌여온 해안스님의 유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날 불사 회향식은 27년 전 해안스님의 육성법문을 전 대종이 들으며 스님을 추모하고,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해안스님은 1974년 전등회 5주년 창



28일 완공되는 전등사는 참선수행하는 재가불자들의 수행처이다. 사진은 전등사전경.

립식 기념 7일정진법회 회향식에서 많은 불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법상에 올라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정진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혼탁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 정법을 수호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온 누리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는 마지막 법문을 남기고 다음날 새벽 열반에 들었다.

전등사는 이날 2년 전부터 준비해온 해안스님 CD와 <해안집(海眼集)>을 발간, 강원, 선원, 도서관, 불교대학과 일반 불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스님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스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집대성하여 3권으로 발간하는 <해안집>에는 해안스님이 언제나 설한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증생의 근기에 맞추는 방편인 무유정법(無有定法), 금강경 원각경 수십결 선시 전등록 해설, 역대조사스님들의 선어록과 전법계승 등의 내용이 정리돼 있다.

생전에 절친했던 도반 조계종 원로의 원 석주스님(월보사 조실)은 "해안스님은 철저한 수행과 대 원력을 바탕으로 증생구제에 앞장서신 분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w@buddhapia.com



해안스님은? 학교설립 문명퇴치운동...재가불자 육성

서래선원에 주석하며 몇 년간 선방을 나오지 않는 등 36하안거를 성만하여 제방에서 존경을 받았던 해안 스님(사진)은 1917년 장성 백암사에서 만암 스님을 제사로 사미계를 받고, 백암사 지방학림, 중앙불교학림을 졸업했다. 1932년 내소사 앞에 계명학원을 설립하여 무취학 수학 선원을 대상으로 문

명퇴치운동을 벌인 스님은 1945년 김계 금산사 주지로 임명됐으나 토굴에 들어가 3년간 은거하며 두 문불출했다. 스님은 1969년 참선에 뜻을 둔 재가불자들을 규합하여 불교 전등회를 창립하고 1974년 서래선원에서 입적할 때까지 전등사에 재가자 선방과 불교학교를 만들어 재가불자를 육성했다.

'조선불교 조계종' 위상 높아질듯

조계사 '조계종 정체성 연구' 24일 세미나

창건 91주년을 맞은 조계사는 조선불교조계종 창립 60주년을 맞아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 연구' 주제의 학술 세미나를 24일 오후 1시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개최한다. 대각사상연구원 김광식 씨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박희승 기획과장이 '조선불교조계종 출범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조선불교조계종 창립의 주역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친일기에 무거운 중심을 두었던 조선불교조계종에 대한 그간의 평가에 메스를 들이겠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기자회견에서 두 발표자는 "친일 행위와는 별개로 한국 불교의 전통과 위상을 지켜 나가려는 자주적·주체적 노력이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사료 발굴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발표 준비과정에서 초대 정종 방한암 스님이 정무총장의 자격 요건을 제시한 친필 사본을 발견한 김 씨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 는 초대정종 한암 스님이 정무행정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간의 인식과 평가를 재고케 한다"며 "총

종장과 3부장, 고문 인선에 개입했다면, 이종욱 스님은 한암 스님이 제시한 정무총장의 자격을 구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박희승 씨 역시 종단의 유지와 존립을 위해선 일제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종정과 정무총장은 당단을 대표해 일제에 협력하지 않을 수

로 조계종을 증명으로 내세운 이유는 "당시 조선 불교의 승려는 태고 법승이라는 의식이 강했고, 태고법승 7천 승려의 종단이기에 태고보우 스님을 종조로, 태고가 조계종 승려이기에 증명도 조계종으로 하였다"는 김포공의 견해가 반영돼 증명과 종조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의 국사를 종조로 추대하지는 권상로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별것이 아닌" "도의 국사로부터 태고보우 국사에 이르는 전법계통이 실전(失傳)되고 없는 까닭이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전개과정은 조선불교조계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냉철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으며, 이것은 곧 정체성 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학술 세미나를 기획한 조계사 측의 설명이다.

권정진 기자 jiny@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풍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이온'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 7회 신행수기 공모

원고지 30매... 마감 12월 15일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내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7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절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요.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2001년 12월 15일

△대상: 불교 신자, 불교도, 불교 관련자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심사내용

- ◇대상(유마상): 사장, 부사(순금 행운의 열쇠)
- ◇우수상(본사 사장상): 사장, 부사(순금 행운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사장, 부사(순금 행운의 열쇠)
- ◇현대종 총무원장상: 사장, 부사(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 총무원장상: 사장, 부사(순금 행운의 열쇠)
- ◇총화종 총무원장상: 사장, 부사(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사장, 부사(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태고탄신 7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태고 보우국사의 원승불교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일시 : 11월 4일(음 9월 19일) 13시

장소 : 서울 마포 불교방송국 3층 고개홀

주최 : 태고종, 조계종, (재)일불선교증, 한국불교승가회, 태고법(문)순

주관 : 한국 불교 태고 학회

후원 : 불교계 신문사 및 방송국

회원(연구위원) (권기중, 김상현, 법산, 성본, 종호, 이봉춘, 정태혁, 오형근, 김영태, 종범, 허홍식, 김방룡, 진철, 주명철) 총무이사(법현) 교무이사(성덕) 재무이사(법현) 사회이사(도봉) 연구이사(도각) 홍보이사(석환) 국제이사(철안) 이사(혜성, 최인순, 덕봉, 통영, 우종근, 삼현, 법운, 대선, 학민, 봉월, 정수, 임법성, 송덕, 복정, 성오, 법우, 월단, 정법성, 대현, 동우, 정담, 혜천, 용암, 월해, 태일, 경담) 감사(병중, 청봉)

주제 : 태고보우국사의 원승불교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1)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태고보우국사의 원승불교 사상과 그 위상

(2) 근세로 이어진 원승불교의 법통과 태고보우국사의 자타 수용의 무에 자락한 삶

(3) 태고보우국사와 보조지눌국사의 사상과 수행교화법 비교 연구

(4) 태고보우국사의 중심 사상과 원승(선,교)불교 수행법

(5) 현대사회의 있어서 태고보우국사의 대승교화법

(6) 원대 선종의 법맥에 대한 소고 (태고보우선사를 중심으로)

(7) 공민왕시 조계종과 화엄종의 갈등 (태고화상과 편조(신돈)을 중심으로)

동국대 권기중교수

동국대 정태혁명예교수

영산원불교대 학교 김방룡교수

동국대 종호스님교수

동국대 오형근명예교수

중국남경대 洪水平교수

정신문화 허홍식교수 연구원

■ 토론 참가자 : 서윤길(동대불교대학장) 법산(동대정각원장) 종범(승가대총장) 이봉춘(동국대 교수)

※ 12월 8일 중 한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함 (장소 : 중국) ※ 당일 참석자 전원 "태고사상" 지 증정함

한국 불교 태고 학회 회장 무공무상

사무처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84-14.12호(무량사내) TEL. 02)904-0081 FAX. 02)904-0083 HP. 011-750-0016